

부동산에 그리 관심이 많지 않았을 때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부동산스터디의 우석님의 글을 간혹 보곤 했었다.

부동산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하고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책들이 우석님의 책이다.

특히 부의 인문학은 투자를 시작하는 이에게는 필독서라고 불리우고 있다니 그 인기와 명성이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제1장 철학은 어떻게 투자의 무기가 되는가

- ✓ 돈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통찰이 없다면 성공은 우연일 뿐 절대 반복되지 않는다.
- ✓ 100년, 200년이 흘러도 굳건히 서서 돈이 움직이는 길을 보여준다. 거인은 어디에 있나? 책 속에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모든 학자를 우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그들의 통찰력을 빌려서 투자한다면 훨씬 쉽게 큰 그림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
- ✓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해석 능력이 달라야 한다. 남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나? 바로 독서에서 나온다. 나의 경우도 좋은 투자는 인문학적 탐독에서 나온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인문학은 시대를 거슬러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과 돈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준다.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 ✓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니다. 빨리 망할 뿐이다.
- ✓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 전략적 사고의 출발점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자신을 알아야 불필요한 인생의 슬픔과 불행을 피할 수 있다. 투자의 성공도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제2장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 ✓ 왜 자유를 버리고 노예의 길을 선택할까? 자유는 경쟁이 기본이고, 노력이 기본이고, 책임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경쟁하기 싫고 노력하기도 싫고 책임지기도 싫은 미성숙한 대중이 쉽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럴 때 달콤하게 등장하는 정치 세력은 파시스트나 공산주의 같은 전체주의자다. 이들은 대중에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속삭인다. 그냥 모든 건 정부가 다 해준다고 약속한다. 그것도 공짜로 말이다. 그렇게 해서 불안한 대중은 자유로부터 도피해서 노예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 ✓ 노예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대중이 자유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해야 한다. 어린 애처럼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고 경쟁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숙함을 가져야 한다.

제3장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 ✓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특히 교육을 많이 받은 인재는 자녀의 교육과 안전에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이다. 그래서 도시 지도자들은 학교 수준을 높이고 치안을 유지하는 데 더욱더 많은 신경을 쓸 것이다. 식당과 극장도 인재를 끌어들이는 요소이지만 학교와 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
- ✓ 지금은 슈퍼스타 도시 전성시대다. 슈퍼스타 도시만 점점 더 커지고 집값 상승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다.

제4장 반드시 이기는 주식 투자법

- ✓ 인간은 확률을 바탕으로 구한 평균 기댓값에 따라서 투자하는 대신에 본능적 충동으로 투자하기에 미래의 대중이 어떻게 투자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 ✓ 소수의 종목에 집중투자해야 제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 ✓ 헐값에 거래될 때 사고 시장이 뜨거울 때 판다.
- ✓ 이 손실 회피성 때문에 사람들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회피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손실 공포감 때문에 적금과 예금만 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멀리하는 것이다. 이런 본능을 극복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아무 데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 ✓ 부자가 되려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제5장 투자의 길을 만드는 부의 법칙

- ✓ 돈 벌고 싶다면 혁신 기업에 투자하라
- ✓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있는 종목은 어떤 기업인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5G 통신 분야의 기업들이다. 이 중에서 유망하고 싼 종목을 고르면 된다.
- ✓ 직관 따위 접어 두고 냉정하게 판단하라

- ✓ 투자를 망치는 2가지 편향: 과도한 자신감과 낙관론
- ✓ 빠른 생각은 많은 편향을 갖고 있기에 투자를 망치게 할 수도 있다.

제6장 자본주의 게임에서 승리하는 법

- ✓ 현실주의자들을 위해 해주는 조언 3가지
 - 첫째, 마르크스는 틀렸다.
 - 둘째, 한국이 부자는 월급 모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이나 주식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다. 부자 되는 비결은 월급에 달려 있는게 아니고 투자에 달려있다.
 - 셋째, 투자하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한다.
- ✓ 가짜 돈인 화폐를 모으려 하지 말고 진짜 돈인 리얼 머니를 보유해야 한다. 그게 부동산이고 주식이다.
- ✓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은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몇 년간 그리면서 우상향한다. 따라서 바닥이라고 생각될 때 과감하게 빚을 얻어서 투자하는 게 최고로 빨리 재산을 늘리는 첩경이다. 이게 투자의 핵심이다. 이게 자본주의 게임에서 이기는 법이다.
- ✓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투자의 기본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본능대로 산다. 가난하게 사는 게 제일 쉬운 선택이기 때문이다. 본능대로만 살면 저절로 가난하게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다수가 가난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다.

‘부의 본능’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읽게 된 우석님의 책 ‘부의 인문학’이다.

부의 본능은 선사시대부터 내려온 유전자에 깊이 박혀진 인간의 본능을 접목시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면 부의 인문학은 당대 최고의 철학자와 경제학자들에게서 얻은 인사이트를 풀어나간 책이다. 두 책 모두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다.

다른 개발서처럼 내가 이런저런 경험을 했고 그래프는 이렇고 앞으로 이럴 것이고 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의 경험보다는 여러 학문적 소양을 토대로 차곡차곡 논리적 계단을 밟아 자신의 생각을 입증하는 방식이라 읽으면서도 고개가 여러 번 고덕여지고 평소 알고 있던 이론에서도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부의 본능'과 '부의 인문학'에서 모두 우석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은 비슷한 것 같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는 것,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구석기시대에 최적화된 본능대로 살 것인가, 이를 극복하고 부자가 될 것인가

투자를 하기 위한 마인드셋을 하기에 좋은 책으로 추천한다.